

재정학 기말고사 정답지

2011학년도 제2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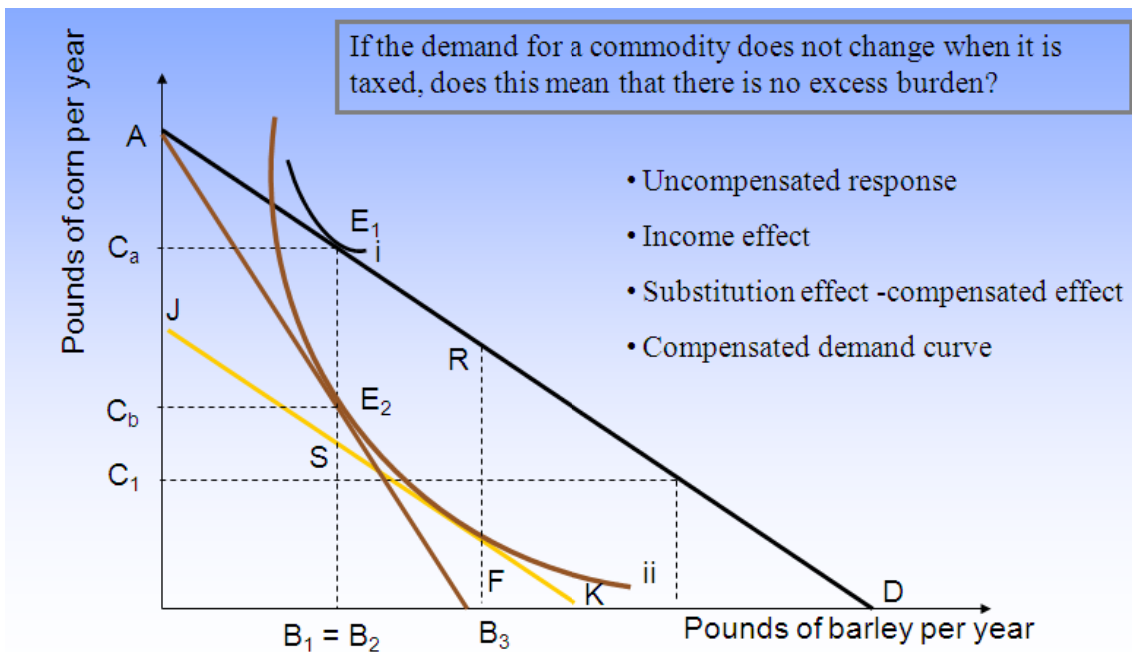
(2011-12-19)

[제1부] T, F, U를 맞췄어도 설명 없거나 틀렸으면 해당 문항은 틀린 것으로 간주. 각 5점씩.

1. True. 물결효과(파급효과)로 인해 영향은 전 부문에 퍼져나가기 마련.
2. Uncertain. 탄력성에 따라 조세전가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
3. False. 한계세율의 증감 여부와 상관없이 평균세율이 올라가는지가 관건.
4. True. 정액세는 경제주체의 행태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5. True. 초과부담은 세율의 크기, 시장규모, 수요·공급의 탄력성에 의존함.
6. Uncertain. 초과부담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기억할 것. 상품 및 노동에 대한 세율, 시장규모, 탄력성에 따라 모두 다르게 나타날 것임.
7. True. 소득이 적어도 소비를 평평하는 사람이 있다.
8. True. 헤이그-사이먼 정의에 따르면 고용주가 내주는 국민연금도 내 소비가능성을 증가시키지만 화폐소득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9. True. 거래가 이루어져야 거래차익을 얼마나 남겼는지 측정하여 과세할 수 있게 된다.
10. False. 잠김효과(lock-in effect)라고 한다.
11. Uncertain. 대체효과 및 소득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다르다.
12. False. 이는 가속감가상각(accelerated depreciation)임. 투자세액공제는 자산 구입가격의 일정 병크만큼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임.

[제2부] 그래프 잘못되었거나, 계산이 틀리면 그에 상응하여 적당히 감점.
설명이 틀리거나 부족해도 적당히 감점.

13. (10점) 옥수수 세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옥수수 소비량 불변. X 축의 옥수수 소비량은 $B_1 = B_2$ 로 세금 부과 전후에 같지만, Y 축의 이슬 소비량은 C_a 에서 C_b 로 줄어들었음. 즉, E_2S 만큼의 초과부담이 발생한 것임.



14. (20점) 아래 그래프에서 세금 50센트가 아니라 5,000원, 가격은 1.5달러가 아니라 15,000원, 2.00달러가 아니라 20,000원, 1.00달러가 아니라 10,000원으로 표시하면 됨. 수요곡선(D), 공급곡선(S) 표시 제대로 했는지 볼 것!

(a) 완전비탄력적 수요곡선 + 보통의 탄력적 공급곡선



(b) 완전탄력적 수요곡선 + 보통의 탄력적 공급곡선



15. (20점) X와 Y를 뒤죽박죽으로 풀이한 경우, 당연히 틀리게 처리할 것!

$$(a) \epsilon_X = -\left(\frac{1}{4}\right)\left(\frac{10}{19.5}\right) = 0.128, \quad \epsilon_Y = -\left(\frac{1}{1}\right)\left(\frac{10}{40}\right) = 0.25.$$

$$(b) \left(\frac{t_X}{t_Y}\right) = \left(\frac{e_X}{e_Y}\right) \text{에다가 } t_Y = 0.05 \text{를 대입하여 풀면,}$$

$$\left(\frac{t_X}{0.05}\right) = \left(\frac{0.25}{0.128}\right) \text{이므로 } t_X = 0.0975.$$

16. (20점) 세 명의 최종소득이 같아지도록 만들면 된다. 왜냐하면 세 사람 모두 동일한 조세구조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즉, 개인의 특성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소득이 달라서 납부세액이 달라질 뿐이다.

세 명의 소득을 모두 합치면 $(5,000 + 500 + 2,000) + (10,000) = 17,500$.

이를 셋이 똑같이 나누면 약 5,833.3.

즉, 상금을 나눈 뒤 세 사람의 총소득이 모두 5,833.3만원씩 되도록 하면 되므로, 각자에게 나눠줄 상금액은 아래 표처럼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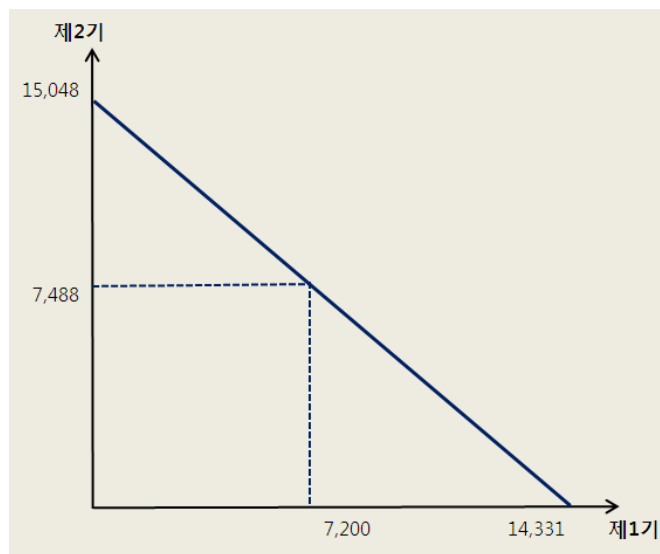
	개인 연소득 (만원)	상금을 나눈 뒤 개인의 총소득 (만원)	각자에게 나눠줄 상금액 (만원)
유세윤	5,000	5,833.3	833.3
장동민	500	5,833.3	5,333.3
유상무상무상	2,000	5,833.3	3,833.3

17. (10점) 법인의 이윤은 기업내에 유보되거나 배당금의 형태로 지불된다. 법인이 1만원의 소득을 사내유보하였다면, 주식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면, 주식의 가치가 1만원 상승할 것이다. 주식시장 가치상승분인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에 비해서 낮은 세율로 과세되고 있다. 게다가 주주들에 대해서 자본이득은 실현될 때까지 과세되지 않으며, 과세되는 경우에도 그 세율이 개인소득세에 비해서 낮은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법인세가 없다면, 사내유보가 과세대상이 되지 않거나 연기되는 일이 벌어져, 개인들이 법인 내에 축적한 소득이 그렇지 않은 소득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법인소득세는 개인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8. (20점)

- 류현경의 제 1기 소득 = 7,200
- 류현경의 제 2기 소득 = $7,200 \times (1.04) = 7,488$
- 류현경이 제 1기 소득을 모조리 저축하여 제2기에 사용한다면, 제 2기에 쓸 수 있는 총소득 = $7,200 \times (1.05) + 7,488 = 7,560 + 7,488 = 15,048$
- 반대로 류현경이 제 2기 소득을 제 1기에 앞당겨 사용한다면, 제 1기에 쓸 수 있는 총소득 = $(7,200) + \left(\frac{7,488}{1.05} \right) = 7,200 + 7,131.4 = 14,331.4$

(a)



(b)

